

조계종은 지금 선거 중

본사주지·총회의원 보궐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선거 열기가 뜨겁다.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와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는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 주지후보와 중앙총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개회한다. 지난해 주지선출 과정에서 불의를 일으켰던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는 2월 22일 14대 중앙총회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를 연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관음사는 후보등록 과정의 종법위반 논란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이번 재선거에는 도종(월라사 주지) 보궐(불광사 주지) 승언(흥부암) 진우 스님(관음사 총무국장) 초경(과주 보광사 주지) 현강(보리사 주지) 해민(범어사 기획국장) 스님이 후보등록했으나 진우 스님이 입후보를 철회해 6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본사주지 선출은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과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이뤄진다.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신)는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범어사 보례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

기로 하고, 입후보 등록기간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공지했다. 현재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 주지)과 상운 스님(중앙총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범어사동산문도회는 지난 1월 3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능가 스님에 대한 문장좌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범어사주지 대성은 2월 23일 오후 3시 범어사 휴 휴정사에서 차기 주지 선출 논의를 위한 문중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주사는 3월 10일 산중총회를 열기로 하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후보등록을 받는다. 현재 중앙총회의원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과 前 총주 세계사 주지 범명 스님, 성천 스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중 합의를 통해 주지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2월 23일 각 문중별 대표 50명이 참석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서는 주지후보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본은사 2008년 첫 재정공개

지난해 사찰 세입세출 내역을 공개해 재정 투명화 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본은사(주지 명진)가 2008년 1월 세입세출 내역을 발표했다. 본은사는 올해부터 매달 정기 신도입원법회를 통해 전월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2월 13일 열린 신도입원법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3600여만원, 불공 수입 4억8700여만원, 불전수입 1억1400여만원 등 모두 12억여원이다. 지출은 법요행사비 5500여만원, 인건비 2000여만원, 관리운영비 1억2300여만원, 목적사업비 1억4100여만원 등 모두 6억6790여만원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매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야문 www.yosiamun.com

본사주지: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충청부지사: (055)746-9778 광주지사: (062)268-1508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성실 윤리를 준수한다

'10·27법난 특별법' 17대 국회서 제정될 듯

국회 국방위 '10·27 법난 특별법안' 상정

빠르면 17대 국회 입기 중에 10·27 법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2월 13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서면 검토해 상정했다.

권대수 수석전면위원은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미 1년여에 걸친 조사항동을 통해 조사결과와 고고사항도 발표됐고,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입법을 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추계도 선결 과제다. 판단돼 우선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입법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상당한 의결까지의 법안 심사소위를 비롯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입원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다섯 차례 정도의



국회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월 1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27 법난 피해자 특별법안' 요약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회의를 남겨주고 있다"며 "현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윤원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 상정 취지를 잘 이해시켜 이번 입

기 중에 의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27법난 특별법은 정권이 불교계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신행문화 정착에 큰 기여

월간 '불광' 2월호로 지령 400호 맞아 행사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에서 매월 발행하는 <불광(佛光)>이 이번 2월호로 지령(誌齡) 400호(사진)를 맞았다. 1974년 11월 창간호를 낸 지 정확히 33년3개월 만의 일로 단 한 번의 휴간 없이 꾸준해 발간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월간 <불광>은 그동안 초심자들에게 교육과 신행의 지도하는 신행잡지로서 불교계의 유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호평 받고 있다.

<불광>창간은 광덕(1927~1999) 스님의 '문서 포교'에 대한 발원에서 시작했다. 광덕 스님은 1974년 서울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 운동에 앞장섰다. 이 실천 운동을 문서로 상징화 한 결정물이 바로 <불광>이었다. 필진들도 이만큼 늘어고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정평했다. 경봉 언허 석주 성철 일타 고산 지관 스님을 비롯해 양주봉 이영령 서정주 이송녕 이기영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또한 '해탈에 이르는 길' '노사의



운수시절' 등 수행담과 전국 사찰 탐방, 불교예법 등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수한 필진과 세련된 디자인, 참신한 기획으로 불자들의 지적욕구와 의사소통을 충족 시켜준 <불광>은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 잡지'와 2005년 '한국잡지협회 선정 우수 잡지'로 선정되 표창 받은 바 있다.

한편 월간 <불광>은 400호 발간을 기념해 2월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축하·나눔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02)420-3200 **김주일 기자**

"동국대 로스쿨 탈락 시정 돼야" 한 목소리

집회·대체회의·종단 모임 성명 등 줄이어

그간 동국대 로스쿨 탈락에 성명서 발표로 그쳤던 교계가 설 연휴 이후 항의 집회와 대체회의를 갖는 등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2월 11일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와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순표),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현보)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항의 집회에는 법타 스님(은혜사 주지)과 중호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운영 사무총장

(동국대 총동문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인간선정이 교육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무시했다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정의 근거 ▲5개 권역 분류로 역차별 당한 피해대학의 대책마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의 부당함 등 이번 로스쿨 예비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로스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월 12일에는 지역단위로 저

음으로 청주정원조계종주지침회의가 로스쿨에서 탈락된 동국대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신년하례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2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단체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지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건,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 (前 KBS 보도/제작팀장, 경매대 영상팀 강사)

문의: 02-2004-8279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서울,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부산)
 - 인문과정(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 불교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명상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부산)
 - 불교학과(서울·부산):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부산)
 - 법사과정(서울·부산):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주간 - 오후 2시 ~ 4시 40분까지 ●야간 - 오후 7시 ~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학 과정: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사 과정: 불교전법행동을 원하는 자,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서류 전형

입학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2월 23일(토) 오후 2시 대원불교대학 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2월 24일(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특 전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교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 전학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Daewon never sleeps ●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대학원

2008년 봄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2008년도를 맞이하여 행복도량 대원정사에서는 불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강사선으로 구성된 고품격 문화교양교 회원님 한분 한분께 다가가는 최고의 서비스로 새로운 문화교양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도량 대원정사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드리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안내

▶ 개강: 3월 초 ▶ 종강: 5월 말 ▶ 월회비: 3만원 ▶ 장소: 대원정사 불교문화회관1층 ▶ 문의: (02)754-1613

※ 대원정사 문화교양회원(월회비 3만원)이 되시면 모든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초하루기도 시 무료로 축원해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오후	지역
월요일	불교경전강좌(아람재)가까이 · 시간: 10시 30분	사찰요리(선재스님): 오후 2시 30분 의인강좌(해린 강): 3시 30분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강사진 소개 · 사찰요리: 선재스님/선재사찰요리연구회장 · 커 피: 권장하 교수 · 와 인: 헬렌 김(와인전문회사 에스텔라 대표) · 다 인: 최미영 강사 · 꽃꽂이: 강경희 강사 · 문화답사: 박물관기행(최광자), 차문화, 불교문화답사(지정스님) · 요가: 김경희(불교방송다보빌딩 요가강사) · 생활명상/지명상: 지정스님 (대원정사 주지, 초의차장승 원장) · 아로마테라피: 박종아 (경기대 민간요법 석사과정, 아로마테라피 샵 운영) · 강력의 신비: 박지혜 (중의대 졸업, 경기대 대학의대학원 석사과정) · 목공예요리,푸드스타일,어린이 음식강좌: 이희경 강사 (중중요리사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화요일		커피강좌(권장하교수) 오후2시30분 다보(최미영강사): 2시 꽃꽂이(강경희강사): 3시 30분	
수요일	문화답사 · 박물관기행 (최광자: 매월 첫째주) · 불교문화답사(지정스님): 매월 둘째주	목 공중요리,푸드스타일,어린이 음식 강좌 · 오후 2시 · 강사: 이희경강사	
목요일	차명상(지정스님):오전10시 30분 요가(김경희강사):11시 30분	노래연습(합창): 오후 1시 생활명상/지명상: 오후 2시30분/지정스님	생활명상/지명상 (지정스님)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아로마테라피(박종아 강사): 오후 2시 강력/지명(박지혜강사): 오후 3시 30분	
토요일		생활명상 집중수련: 오후 2시 부터 · 매월 3주 (월 1회)	

2008년 봄 월영 일요일특강

▶ 장소: 후암동 대원정사 1층 큰법당 ▶ 시간: 일요일 오전 11시

순서	일 자	강 좌 내 용	강 사
1차	3월 9일	사찰요리	선재스님(선재사찰요리 연구원장)
2차	3월 16일	불교음식에 깃든 정신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 교수)
3차	3월 23일	우리문화의 열과 정신(문화답사)	이세용(우리문화 해설가)
4차	3월 30일	자리명상	묘운스님(행복명상원장)
5차	4월 20일	총자의 효능과 맛있게 마시는 법	정영숙 교수(부산여대교수)
6차	4월 27일	생명과 환경 윤리	이재돈 신부(가톨릭대학 교수)
7차	5월 4일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비결	항적원사재정통쟁이치 연구원장

행복도량 ● 대원정사

서울특별시 용인구 후암동 358-17
전화 (02)754-1613 / 754-9171
팩스 (02)771-6796
www.idaewon.or.kr